

D램 모듈, 성장률 10.9%로 둔화

아이서플라이, 2010년 14.6%에서 3.7%p 하락 ... 생산 8억1280만대

D램 모듈 시장이 2011년에도 성장을 계속할 전망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2011년 D램 모듈 시장 성장률은 10.8%로, 2010년 14.6%에 이어 10%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아이서플라이는 2011년 D램 모듈 생산량이 8억128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D램 모듈 시장이 2011년부터 되살아나고 있고, 소비자들의 PC 교체가 증가하면서 D램 모듈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서플라이는 2011년 전체 D램 생산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5억1040만개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통적인 장비기업이 만들고, 19%는 D램 모듈 전문기업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DDR3 D램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해 다음 세대인 DDR4 D램이 본격적으로 양산될 시기인 2015년까지는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6/01>